

에스컬레이터를 안내할 때

올라가는 곳인지 내려가는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오른쪽 손잡이를 잡도록 해주세요.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것
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 02-950-0109)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은행 1005-201-776110
(예금주 :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8권 11호 통권 148호

2012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제작 크리콤 (T.02-2269-6224)

전화 02-950-0109 팩스 02-934-8069

Homepage www.nowonblind.or.kr

E-mail kbuhongbo@hanmail.net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 4동 157-33번지 2층

표지 사진설명 - 위쪽부터

!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시각장애 육상경기 장면
(사진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술 강좌 '힐 프로그램' 중 북촌투어(다리 힘 키우기) 장면

! OB맥주 임직원과 함께 한 시각장애인 등산교실(북한산 우이령길)



손으로 보는 세상



장애인을 위한 국가대표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의사, 국립암센터 박종혁 과장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김영일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8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 도서관 및 유관기관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4일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개관식 및 현판식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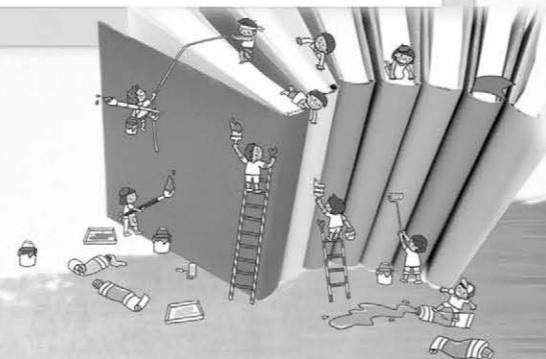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및 현판식



김영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자도서를 보고 있다



시각장애인 의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시각장애 3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의사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어릴 적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가족들에게 장애사실을 말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었기에 수능시험도 의사국가고시도 모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치렀습니다.

그는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에 이어, 10월 15일에 열린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에서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유공자표창 수상장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장 특별한 하루, 올해로 33번째 맞는 '흰지팡이의 날'

10월 15일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로, 모든 나라에서는 이날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3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10월 15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체육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며,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선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흰지팡이의 날 기념 거리행진 ▲

NEWS ALBUM

1 OB맥주 임직원과 함께 하는 Cass Fresh, Earth Fresh-시각장애인 등산교실이 10월 25일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진행됐습니다.



2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한 장애인단체 우수직원 연수에 참여해 일본 나가사키현 시각장애인 정보센터 방문, 후쿠오카 국제유니버설 디자인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 연합회는 CJ CGV, 영화진흥위원회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전국 11개 영화관에서 배리어프리 버전 화면해설 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이병헌, 한효주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시·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201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일간의 감동 드라마 “내년에 대구에서 다시 만나요”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폐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내년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대구광역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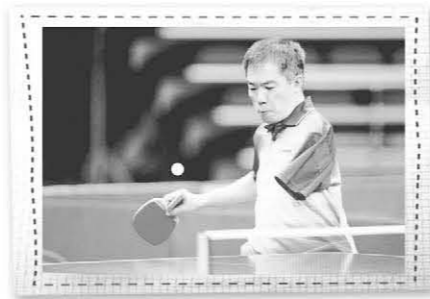
종합순위에서는 경기도가 총 273,308점(금146, 은157, 동130)으로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이 163,269점으로 2위, 인천은 153,631점을 기록하며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표선수들도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시각장애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최광근 선수(경기)는 -100kg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사진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



▲ 시각장애 유도 종목 우승을 차지한 최광근 선수(흰색 도복)



◀ 개막식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미술로 마음 다듬기, 우리들의 눈과 함께 '힘' 내세요~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한 달에 두 번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술 강좌 '힘!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미술체험을 통해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마음 힘 키우기(예술심리치료)·다리 힘 키우기(복춘 투어)·입맛 키우기(음식 만들기) 등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1996년부터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해왔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화된 미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